

세계구거리의 개척의의와 지방정부 및 민간사회단체의 역할  
Habitat II 한국정부 및 시민사회



# HABITAT II

## 참가선언 및 심포지움

◎ 자료수집순서

1. 행사순서

일시 :

1996년 5월 21일 오후 2시

장소 :

종로 5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전화 : 741-4361)

1부

HABITAT II

지방정부 · 의회 참가단 및 한국민간위원회 참가선언

2부

HABITAT II

개최의의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회단체의 역할

주최 : HABITAT 한국 민간위원회

HABITAT 지방정부 · 의회 참가단

(전화 : 3673-3031; 741-7961/5)



# HABITAT II 참가선언 및 심포지움

전행 유세인 관련된 사무총장

인사 및: 국토세 지방정부청장 / 순천시청

## ◎ 자료수록순서

1. 행사순서
2. 세계주거회의(HABITAT II) 참가단 공동 선언문
3. HABITAT II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순천시청 방성룡
4. HABITAT II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전략  
박종렬 한국민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 참가단

1. HABITAT II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방성룡 순천시청)

2. HABITAT II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박종렬 한국민간위원회)

## 참가인사

1. 전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2. 박종렬 교수 (참여연대)

3. 김근태 부회장 (인간의 권리)

4. 이종우 이사 (서울시립대학교학장)

## 주최·주관

<행사순서>

1부

HABITAT 지방정부·의회 참가단 및 민간위원회 참가선언

진행 : 유재현 경실련 사무총장

인사말 : 이문제 중랑구청장 / 순천시장

: 김진홍 주거연합 대표

경과보고 : 나효우 / 고은택

격려사 : 이세중변호사

공동선언문 발표 : 이금라 의원(서울특별시의회)

2부

HABITAT II 개최의의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회단체의 역할

좌장 :

하성규 교수(중앙대) *박대훈*

발제 :

1. HABITAT II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방성룡 순천시장)

2. HABITAT II의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박종렬 목사) *송진영(민간)*

토론 :

최열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조홍식 교수 (참여연대)

이상덕 부회장 (여성의 전화)

이창우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종합토론 및 폐회

## HABITAT II (세계주거회의) 참가단 공동 선언문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개발'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리우 환경회의로부터 출발한 이러한 전지구적 노력은 1995년 사회개발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발전해왔고, 이제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를 통해 종합되어 사회진보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노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이다.

세계주거회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도시화되고 있는 세계속에서 지속가능한 인간정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지구적 차원의 논의를 거친 결과 세계주거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채택할 예정이다.

세계주거회의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각별한 것이다.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은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 강제철거와 전세값 폭등을 비롯하여 각종 오염과 자연환경 파괴, 사회적 약자를 무시한 도시환경 조성, 늘어나는 통근시간과 불편한 대중교통수단 등의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들은 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데, 아직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주거회의 참가단은 '인간 중심의 도시화'라는 전략과 '주거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한다. 나아가 우리는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를 전지구적 차원의 행동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 특히 주목할 것이다.

첫째, 주거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강제적인 철거는 지양되어야 하며,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강제적인 철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주거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주거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하고, 평등하며, 자치적인 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압축적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의 도시환경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생산, 불평등한 배분, 과잉소비,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기업이나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개발·관리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환경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평등, 환경자

치라는 3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도시간 균등발전과 과잉소비의 억제, 생존을 위한 적정 자원의 보장과 자원이용 및 환경개선 비용의 형평적 분담, 환경관련 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와 방어적 주민활동의 보장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개발주도의 경제정책은 계층간의 차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을 소외시켰고, 정주권에서도 남녀차별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주택과 토지의 소유, 상속에 대한 여성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과 아동, 노인은 지역사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며 가장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생활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안정된 공간으로서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내의 유해화학물질, 교통사고, 향락업소, 성폭력 범죄의 유해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면서도 모성이 보호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여성, 아동,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은 그들의 상황과 신체구조에 합당하게 건설되어야 하며, 성을 상품화하는 매체를 규제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생활최저선보장은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책이 되며, 삶의 질에 대한 일관된 정책 목표를 제시해 주는 것이며, 전국민의 삶의 영역에 대한 합의된 기준선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삶의 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장래 통일 한국에서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다.

다섯째, 교통정책과 교통운영, 교통시설의 설치에서 친환경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감시키는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량과 교통수요를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보행교통 등이 연계되는 녹색교통망(Green Transport Network)이 교통체계의 핵심을 이루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도로의 신설과 확장을 중심으로 한 교통투자를 지양하고 녹색교통망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이러한 사안들이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 정책의 변화, 민간부문의 활발한 참여, 긴밀한 연대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주거회의 참가단은 이를 수행함에 있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는 바이다.

1996. 5. 21

**세계주거회의 한국참가단 일동**  
**한국민간위원회 / 지방정부 · 의회 참가단**

## HABITAT II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 순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

순천시장 방성룡

#### 1. 머리말

순천시가 하비타트(HABITAT II)에 참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회의가 그린순천 21의 연장선 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린순천 21은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주창한 Local Agenda 21을 순천지역에 맞게 실천하기 위한 범 시민적 운동이며, 이 운동이 좀더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Local Agenda 21 추진 과정을 국제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좀더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배우기 위한 일련의 학습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근 30년 이상 중앙집권 형태의 행정체제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맞게 행정 시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행정을 펴기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92년에 리우환경회의에서 Local Agenda 21이 선언된 이후 이 실천지침을 중앙정부가 제공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정부로서는 중앙정부가 지시나 지침으로 시키지 않는 일을 구태어 하면서 행정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는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이 Local Agenda 21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도시에서 이 환경선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민선 지방자치제에서 확보된 자율성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 본다.

그동안 우리는 환경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덜 하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환경의 오염이나 그로 인한 인간적 피해가 눈에 보이고서야 대책을 세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환경 보전 운동을 하여 왔다.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의 강한 매연, 보기에 흉할 정도로 보이는 하천의 물을 바라보면서 이제야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환경 자체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급속한 경제성장만이 최고의 가치라 평가되었던 과거의 경제논리 우선주의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비롯된 자연자원의 변형과 자연생태계의 인위적 또는 기형적 변화를 가져 왔고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날 지구촌의 주된 환경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환경문제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범지구적 차원에서 쟁점의 대상이 일치된 경우도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논쟁이 정부와 각종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간의 역학, 즉 힘의 관계에 의해 갖추어 진다고 볼 때 이들 서로 간의 상호의존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우리 순천시의 환경을 보면 70%를 차지하는

많은 산과 주암댐 건설로 만들어진 상사호와 주암호라는 인공적인 호수 그리고 도시 중심에는 선조들이 중국의 강남에 비유했던 아름다운 하천과 도시 인근의 공원이 있고 시내권에서 10 - 20분만 벗어나도 바다가 바라보이는 그야말로 산, 바다, 호수, 강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생태적 표본의 형태를 보유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 아름답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우리의 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그린순천 21 운동을 전개 하게 된 것이다.

## 2. 지방의제 21의 배경과 의의

### 가. 배경

지금 우리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지구 환경 문제가 비단 현재에 와서 거론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지구환경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산업혁명 그 훨씬 이전부터 발생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지방도시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이르러 국내외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다.

지난 1960년대에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들의 개발을 UN이 지원할 때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가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기 위하여 각종 UN회의에서 환경과 경제개발 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한 것은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대회에서 바바라 워드(Barbara Ward) 여사가 최초로 사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나. 의의

지방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된 의의를 살펴 보면, Local Agenda 21은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회의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한국을 비롯한 세계 150여개 국의 정부대표가 500쪽 이상의 문건으로 작성된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가 실천계획을 1996년까지 마련할 것을 강력히 권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Local Agenda 21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빈민, 도시의 취업과 생계, 민주적 행정과 지역사회 협력, 도시환경과 건강, 자원과 토지이용, 시장기능과 재정, 교통과 통신, 언론문제 등을 도시환경문제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Agenda 21과 Local Agenda 21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Agenda 21이 지구적 차원 또는 국가별로 인류가 실행해야 하는 에너지 문제, 자연자원 문제, 공해와 폐기물의 감소, 생태계의 보호, 여성문제, 식량문제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천강령을 요구하는 반면, Local Agenda 21은 거의 대부분의 과제가 모든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강령을 마련하여 1996년까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과제는 권고 형식의 과제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는 관계로 환경 문제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가속력 있게 추진 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Local Agenda 21의 지역적 실천

순천시가 Local Agenda 21의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였던 몇몇 국내 도시의 자료와 사례를 보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은 Local Agenda 21에 대한 실천 지침이 거의 모두 환경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고 도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시민의 의식에서부터 경제적 문화적 부분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외국의 몇몇 도시의 사례중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일본 가나가와의 사례가 Local Agenda 21을 환경쪽으로만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반 자료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까지 도시개발의 일관성과 지속성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각 도시의 현실을 볼 때 Local Agenda의 지방적 실현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보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만 한다면 과거의 임기응변식 도시개발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개발을 위한 시민적 공감대와 지역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Local Agenda를 추진함에 있어 획일적이고 일괄적으로 해석된 각종 용어의 풀이가 매우 학술적이며 어렵다는 여론을 많이 듣는다.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용어가 우선 친근하지 않으며 지역의제 21로 명칭된 Local Agenda 21의 지역적 명칭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발달녹색연합이 주최한 '바람직한 지방의제 21을 찾는다' 라는 세미나에서 일부 관심있는 분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좀더 친근하고 토착적인 용어의 발굴에 힘을 기울여야 친근한 도시개발 운동으로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 가. 도입 배경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순천시는 1995년 승주군과 통합하여 전라남도에서는 인구와 면적이 첫 번째인 도농복합지역이 되었고 인구는 약 26만명이며 면적은 서울시의 1.5배나 되는 큰 도시가 되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의 동부권을 중심으로 교육, 교통, 관광 및 금융의 중심도시로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변에 광양컨테이너부두, 울촌공단 및 여천석유화학단지의 배후도시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남해안 중심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인문적 지리적 여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Local Agenda 21을 추진하기가 용이한 곳이기도 하다. 환경 또한 오염이 많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민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앞으로



순천시의 환경 보전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7월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순천시를 환경표본도시로 건설할 것을 선언하고 그린순천 21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가시적인 환경은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순천시의 경제가 팽창하고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차량의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주암호를 비롯한 하천에 농업폐수와 축산폐수 및 음식숙박업소의 하수가 유입되어 수질이 낮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순천시의 앞으로의 과제는 남해안 중심도시로서의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환경의 질은 현재보다 개선된 상태로 보전하고 또한 건강, 교육, 사회복지, 주거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순천시 행정의 최상의 개념에 이 그린순천 21 시책을 올려 놓고 있는 것이다.

#### 나. 주요 실천 방향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산과 소비의 생활방식으로 순천시가 계속 팽창하고 오염이 가속화 된다면 과연 10년이나 20년 후의 순천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기본적인 의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그린순천 21을 추진하는 주된 방향이다.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행해진 많은 조사와 연구의 결과를 보면 현재의 도시적인 생활양식으로는 도시들이 10년, 20년 후까지 지속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정상적인 삶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어떻게 이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 주며 어떻게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이루어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내일을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여 그에 대한 목적을 설정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으로서 순천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어떤 방식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인가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Green 순천 21의 주요 실천 방향이 되겠다.

#### 다. 추진 과정

##### 1) GREEN 순천 21 추진 협의회 결성

주민들과 단체 및 사업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협의하는 과정이 충실할수록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내용들이 주민과 단체 및 기업체에게 충분히 이해될 것이며,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Green 순천 21의 수립에 좀더 많은 시민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

리우환경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도 1996년까지 각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제 21'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주민, 지역단체 및

민간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문을 받아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지역 의제 21'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시는 이러한 '지방의제 21'의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고자 범시민적 의견을 토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 운동 추진을 위한 순수 민간단체인 Green 순천 21 추진협의회를 조직하고 지난 2월 14일 출범하였다.

Green 순천 21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시민, 민간단체, 시의 각 기관 및 기업이 함께 참가하여 의견제시와 협의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범시민적인 조직이 필요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95년 11월부터 순천시 공무원과 시민단체 실무자 및 전문가 등이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순천시에서도 지방의제 21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지방의제 21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표 설정 등의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할 전문가 즉 경제, 정보통신, 환경, 농업, 교통 등의 분야 교수들이 여러차례 논의한 결과 순천시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의하고 '95년 12월 19일에 10개의 연구과제 및 과제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여러 집단별 모임을 통하여 순천시에 있는 모든 구성원인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공기관, 시민단체, 여성단체, 청년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농민단체, 기업,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각 행동주체들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96년 1월 10일에는 Green 순천 21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위원장과 11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하고 '96년 2월 14일에 Green 순천 21 추진협의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Green 순천 21 추진협회에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환경관련 기관, 각 직능단체 및 기업 등 모든 계층이 총망라되어 추천된 284명의 추진협의회 위원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기구는 순천시장을 비롯한 6명의 고문, 상임의장을 포함한 5명의 의장단 그리고, 22명의 상임위원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산하에는 시민위원회, 연구위원회, 협력위원회가 있으며 또한 실무를 전담하는 사무국도 설치되었다.

추진협의회는 각 조직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문과 의장단은 대외적으로 협의회를 대표하며 추진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 하고 상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추진협의회의 주요 활동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활동방향, 사업계획, 사업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또 추진협의회는 사업에 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는 기구로서 시민위원회가 있는데, Green 순천 21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며 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Green 순천 21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담당하여 Green 순천 21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순천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지침이 시민,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순천시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협력위원회는 순천 지역의 기업체를 중심으로 10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연구위원회의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고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행동지침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또한 추진협의회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위원회에는 35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가 모여 과제별로 10개의 분과를 두고 있다. 10개의 분과는 경제, 농업, 문화유적, 교육사회복지, 문화예술, 교통, 도시계획, 환경, 정보 및 행정·제도개선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구위원회의 연구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 후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제도개선분과에서는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조례를 개정·제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환경기본 조례는 그동안 5차례의 토론회와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6월 하순경 의회 의결을 계획하고 있다. 연구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 현황에 대하여 기초적인 조사 및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며 순천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연차별 지표를 설정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연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정책 수행의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설정된 지표의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달성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 연구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연구위원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각 과제별로 전문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였다. 시민을 비롯한 각 기관과 단체 및 기업의 정보와 의견을 취득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주로 설문조사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공개 토론회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립된 생활지침은 공공교육기관, 시민단체 및 주부단체 등을 통하여 전달해 가고 있다.

## 2) 시민공청회

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한 지표와 행동지침 및 조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또한 도출된 내용에 대하여 시민, 기업, 지방정부 등의 행동주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의 방법으로서 시민공청회를 활용하고 있다. 시민공청회는 Green 순천 21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순천시의 다양한 현안과 지속가능한 방안들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순천 시민들에게 지속가능성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표는 무엇인지를 알리게 된다.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게 되고 이를 위해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을 바꾸고 이는 결국 순천시의 변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며 시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시민공청회는 시민위원회가 주관하고 사무국이 협조를 해 나간다.

### 3) 연구 심포지움

연구위원회의 분과별 연구과제중 좀 더 심도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순천시의 연구 결과물을 함께 논의하므로써 연구결과물의 방향 및 타당성을 학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4) 시민교육

Green 순천 21의 개념을 전 계층별·기관별·조직별로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Green 순천 21 추진협의회에서 사무국을 중심으로 교육팀을 구성하고 Green 순천 21을 알기 원하는 여성단체와 각급 학교 등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팀에서 파견하여 수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5) 홍보활동

Green 순천 21의 추진 현황을 알리고 좀더 많은 시민들과 Green 순천 21을 함께 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매달 2회 발행하고 있고 순천시정 소식지에 월 1회씩 Green 순천 21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순천 지역의 PC 공중망인 팔마텔을 이용하여 Green 순천 21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96년 7월 1일부터는 Internet에 순천시 Home Page를 설치 운영할 예정에 있다.

좀더 많은 시민에게 Green 순천 21을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Green 순천 21 선포 주간 기념행사를 다채롭게 전개하면서 푸른 순천 가꾸기 자전거 대회, 환경 심포지움, 순천시 환경선언 시민서명운동,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정비, 환경사진전시회, 자연정화운동, 어린이 환경글짓기 대회, 환경퀴즈대회 및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시연회 등을 개최하였고 순천시를 흐르는 하천을 보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하여 순천의 수계지도를 작성하여 5,000부를 배부하기도 하였다.

### 6) 재 정

Green 순천 21을 운영하는 총 예산은 96년에 약 1억1천7백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60%인 7천만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30%는 협력위원회로 참여하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3천5백만원을 모금하고 나머지 1천2백만원은 시민들에게서 모금하기로 하였다. Green 순천 21을 추진하는 기금은 시민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모금액을 적극 늘려나가고자 한다.

#### 4. Green 순천 21의 과제

환경과 개발은 공존되어야 한다. 개발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차원의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여야 하고 자연자원의 수요를 최소화하며 사용했던 자원은 재자원화 하는 도시 구조를 조성하고 미래의 세대도 우리가 누리는 똑같은 질의 자연환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피해는 사전에 방지하고 환경보전비용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가시키지 않으며 경제적 부와 생활의 편리함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는데 이 운동 추진의 이념을 두고 있다.

우리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Green 순천 21의 목표는 1차적으로 2010년이다. 그래서 Green 순천 21 연구위원회에서는 각 과제별로 대안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일단 지표가 설정되면 또다시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 분야는 경제, 농업, 문화유적, 교육사회복지, 문화예술, 교통, 도시계획, 환경, 정보, 제도개선 등 총 10개 분야이며 종합적인 지표 설정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이번 HABITAT회의 참가후 현재 설정된 지표에 대한 시민의 검증과정을 거치기 위해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순천시가 지향하는 21세기 환경표본도시 가꾸기에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지역의제는 하반기인 3/4분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남해안의 중소 도시이지만 지구 환경 보존에 적극 협력해 나가는 그린 순천 21 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이미 세계에 많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국가적 청사진을 수립하는 노력을 소중히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 사회는 걸차게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하고, 지역간, 남북간, 이념적, 종교적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직도 정치적 권력의 주도적 위치에 입각함으로써 21세기의 협력과 상호 협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하여 우리 민간단체들도 국내 문제에 중심을 두고 서로 협력 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환경회의, 환경의성대회 등은 물론 국제적 경제개발 연대회, 환경의성대회 등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운동의 과다다임을 찾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를 비판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연대활동을 형성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기 위하여 우리 민간단체들도 계속적 관계를 형성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우리 민간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너무 절박해 환경보전 운동을 하기 위하여 우리 민간단체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 HABITAT II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전략

박종렬 공동상임위원장

### 1. “새로운 연대의 시대”를 표방하는 의미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연대의 시대

세계주거회의의 의제(모든 인류에 대한 적합한 주거환경 및 세계가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인류 주거의 개발)을 실천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 주민의 협력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21세기의 시대가 빈부의 격차와 차별의 시대로 가느냐 아니면 상호공존과 평등 그리고 우애의 시대로 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민간단체의 연대와 참여의 질과 양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자율적이며 또한 국가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힘을 견제하고 평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엔이 “새로운 연대의 시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있는 행동이다. 그러나 현재 세계가 자본주의 시장시대로 돌입하고 빈부의 격차와 인간적 차별과 소외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자연과 인간 간에도 적대적 대립과 소외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에 모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국가적 행동지침을 만드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못하고, 지역간, 남북간, 이념적, 감정적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직도 정치적 권력의 주도적 위치에 집착하므로써 21세기의 협력의 장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 민간단체들도 국내 문제에 중심을 두고 사고해 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환경회의, 북경여성대회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연대를 경험한 민간단체들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운동의 파라다임을 찾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 그 속에서 정부를 비판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연대들을 형성하여야 한다. 더구나 국제적인 연대에도 계속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제를 다루기 위한 민간단체의 협력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너무 정치적 문제로만 연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 생명관을 가지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중요해 보이는 것만 보면 안되고, 모든 것은 다뤄야 한다.

## 2. 거대도시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범지구적으로 중요한 2가지 주제로 “모든 인류에 대한 적합한 주거환경 및 세계가 도시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인류 주거의 개발”로 세계주거회의는 잡고 있다. 이는 적합한 생활조건을 갖지 못한 약 10억 이상의 사람들의 복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21세기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전 인류의 약 50%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일할 것으로 보이며 2025년 경에는 전 인류의 2/3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다. 고용기회의 부족, 무주택의 확산, 부랑민 거주지역의 확산, 빈곤의 증가 및 부적절한 토지사용, 교통체증의 증가,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 심화, 안전의 심각성, 서비스와 사회하부구조 건설의 취약성, 인구증가, 녹지부족, 질병에 대한 취약성, 도시관리의 문제, 물질주의의 범람과 성 차별 및 성 상품화로 인한 성 범죄의 범람 등등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 1) 대단위 아파트 지역의 주거 문제 - 고층화의 문제
- 2) 토지개발 사업의 문제 - 시화지역개발 - 환경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음
- 3) 쓰레기 처리문제 - 발전소 설치(경비 문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를 극복할 대안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역이주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자연, 식물, 동물, 인간, 지구, 우주가 모두 생명체의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면 ‘보다 더불어 서로를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는 이치를 배우고 그 철학과 삶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 원리 가운데 현재의 잘못과 모순을 극복하는 대안을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변화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민간단체의 힘으로만 정부의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과제를 극복하려면 현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분쟁, 무력갈등, 테러리즘, 외국에 대한 침공이나 점령 등은 인류의 주거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바로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민간단체들이 해야 할 과제는 이런 입장에서부터 행동을 같이하는 연대와 원칙을 준수하는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다.

## 3. 민간단체들이 함께하는 행동지침의 필요성

- 1) 인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정의로움과 공동체성의 형성의 과제

“안전, 편의, 자아실현”의 장(場)인 도시가 힘과 부유와 탐욕의 문화로 전락하는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편향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민단체들의 연대가 되어야 한다.

2) 특히 에코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요즘 장되는 바대로 생명체적 관계를 형성하는 유기적 생태적 환경의 삶을 사는 생활양식에 맞춰 환경을 재변화시켜가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독특성과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쉽으로서의 나눔과 조력을 이루어간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우리 상황에서의 특별한 행동지침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주거권에 대한 입장의 정리와 강제철거에 대한 반대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200만호 아파트 건설을 통한 주거문제의 해소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국가보고서'에서 과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200만호 건설을 통한 거품경제, 비자금 조성사건 등에서 보듯이 엄청난 투기의 열풍 가운데 중상층의 '1가족 1주택 갖기'로 비생산적 투자에 힘을 쏟았지 환경에 관련된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 환경 공해를 일으키는 거대한 골프장 건설도 마찬가지이다.

(2) 개발에는 환경평가를 해야 하며 이에 언제나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주민과의 대화와 동의를 유도하며 설득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지방정부의 역할(자치와 공동체 조성)이 중요하다. 민간과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4)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5) 건강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지역주민 스스로의 노력의 필요성)

- 위생문제
- 청소년문제
- 물질, 성상품화 및 범죄의 문제
- 빈곤 감퇴의 과제

종교적 가치의 성숙한 수용과 사랑과 신뢰의 사회관계의 형성문제  
사회교육 제도가 필요하다.

(6) 올바른 에너지 사용, 적합한 교통, 통신 시스템의 제공

(7) 농촌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문제 - 자연의 순환법칙에 순응하는 생활양식 운동을 편다.



(8) 국가개발에서 인간개발에 최우선을 두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창우 박사 - 시정개발연구원)

더 이상 도로를 건설하지 말라(보행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 4. 이스탄불 '세계주거회의'에의 참여와 그 후의 전략

10일 이상의 세계주거회의의 참여는 국제적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전문적 시민단체나 주민단체의 회원들에게는 지루한 회의의 연속일 것이다. 수많은 아이디어와 대안들이 우리의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직접적 계기를 주는 것들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을 대표한 민간단체의 대표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느끼고 우리의 수준과 다른 나라의 수준을 비교하면서 21세기를 대비하는 주체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여행간 것만도 못하다.

여러 분야의 토론이 전개되기 때문에 각 단체간에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긴밀한 논의체제와 현지에서의 대응논의도 요구될 것이다. 여하튼 우리의 꿈과 비전을 우리 자신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간단체간의 사귄과 나눔도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 대표와 지방자치단체 대표들과도 사귄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한 관계를 일소하고 대화와 앞으로의 협력의 과제를 다루어보는 것도 긴요할 것이다.

사실 세계주거회의의 참여는 돌아온 후의 우리 민간단체들과 정부간에 그리고 민간단체 서로간에 나눈 공동의 인식과 대화를 토대로 우리의 행동계획을 국내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관건이 달렸다. 아직은 무어라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연대를 발전시킬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만 말하고 싶다.